



화순군, 농업생산비 절감 사업 추진 농가소득 높인다

21개 사업 160억원 지원, 농산물 생산단가↓ 농업 소득↑



벼 공동육묘장

화순군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21개 사업에 160억 3,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농업 생산비 절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농작업 대행사업에 6억 5천만원을 들여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벼 직파단지에 동력파종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지원해 고령·영세·부녀농을 위한 생생비와 노동력을 절감해 영농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3억 8천만원을 투입해 인력 절감과 공동농작업을 통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드론,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등 식량작물 생산 경쟁력을 확보키로 했다.

군은 각종 농기계를 지원해 생산부터 수확까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나설 계

획이다.

이에 따라 6억 3,900만원을 들여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맞춤형 농기계를 지원해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단순 반박의 고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도 지원한다.

또한 유통분야에 곡물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및 소형 저온저장고 등 소규모 농가를 위한 건조시설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농가 지원사업에 38억 1,600만 원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새끼우렁이, 유기농업자재, 못자리 삼도지렁이 등 농가 지원에 통해 노동력 절감과 토양의 지력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 소득을 높이기로 했다.

원 및 축산분야 분야에도 23억 6,800만원을 지원해 원예분야 ICT 융복합지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등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생육환경을 최적화하는 등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직불제 등 농업 소득보전을 위해 73억 4,200만원을 투입해 경쟁력이 취약한 농가의 소득 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다양한 사업을 통한 기반조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직접적 보전 외에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 및 경영안정 대책비 등을 통한 간접적 보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억 5천만원을 들여 자연 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주고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구종관 화순군수는 “농업이 살아야 화순이 살고, 화순이 살아야 군민이 행복하다는 신념으로 올해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농업관련 사업을 다양화하고, 민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농업생산비를 절감해 농업하기 좋은 화순군을 만들어 나가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형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체감 행정 펼친다

빅데이터 이용 4차 산업혁명시대·스마트 시티 선도

순천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정 현안과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과 인터넷, SNS 등의 폭발적인 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미래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순천형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시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빅데이터를 우선 분석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부서별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시장현안을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체계를 위해 순천시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TF팀을 가동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해안’을 활용하여 상시 분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통기반 활용모델을 이용하여 뉴스·블로그·트위터 등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시민 관심사를 파악하여 정책에 미리 반영한다.

순천시에서는 2018년 안전한 순천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CCTV 설치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사각지대를 분석하여 시민 생활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진 교통행정 정책수립을 위해 시내버스 승차차 데이터와 승강장 위치, 노선, 인구 등을 융합하여 교통 사각지대와 버스 중복도를 개선하는 빅데이터 분석도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연간 900만명의 관광 트

랜드 파와와 맞춤형 관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순천 관광과 관련된 블로그, 트위터, 뉴스 등 SNS상의 빅데이터 98,200여건을 추출하여 ‘해안’을 이용해 자체 분석했다.

순천시에서는 스마트시티 구축의 기반시설이 되고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 각종 시설물 설치에도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순천시 홍보전선과 위영에 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신 ICT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기존의 직관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기반의 ‘순천형 스마트시티’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아이 생애 첫 증명서 제공서비스 시민들 큰 호응



순천시에서 미래의 희망인 아이 탄생을 축하하고 엄마·아빠에게는 소중한 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시작한 ‘아이 생애 첫 증명서’ 제공 서비스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에게 아기 사진, 인적사항, 부모가 바라는 한마디

등을 기재하여 아이의 첫 증명서인 출생증명서를 간직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아이 생애 첫 증명서를 받은 A씨는 “누구에게나 처음은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은 출생증명서를 간직할 수 있고, 아이 탄생의 순간을 추억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아이 생애 첫 증명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순천시에서 출생신고 한 아이를 대상으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

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출산장려를 위한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단 한 번뿐인 아이 탄생의 소중한 순간을 간직함으로써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을 선물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기업 다둥이 꿈 키움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등 지역이 함께 아이 키우는 문화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중영 기자

나주사랑상품권 판매 6억 원 돌파...지역경제 활성화 ‘효자’



나주시가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발행·판매하고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이 지난 1월부터 2월 21일 기준, 6억 원의 판매고를 돌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달 설 연휴를 대비해, 약 20억 원 가량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5%할인판매 행

사 등 활발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한 결과, 올해 누적매출 6억 원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 배경에는 명절 연휴 전후 상품권 액면가 5%할인판매 등 각종 이벤트 적용을 비롯해 나주시와 유관기관·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MOU체결(41곳)을 통한 상품권 이용 협력체계 구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장보기 날 행사 개최, 성과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나주시의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 5%할인판매 행사 기간 동안 한국전력과 한진KPS에서는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나주시 소재 5개 복지시설 지원에 나주사랑상품권을 활용했다.

또,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MOU를 체결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나주경찰서, 나주세무서, 국립나주박물관, 통합방위위원회, 광주은행 영산포지점 등은 상품권을 구매해 장보는 날 행사를 가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기관·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상품권 사용을 독려하고 올해 판매 목표액인 20억 원 달성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도 상품권 애용을 통한 대형 유통시장 앞에 침체 패기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시, 산림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강화

중복·편중지원 방지 보조금 누수 방지와 예산 투명성 높여

광양시는 입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생산기반 규모화와 현대화,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산림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산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수혜이력과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

척자금 내역을 확인해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사업은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는 이번 강화된 선정기준을 2019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에 적용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6일 농정심의 산림분과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2019년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몽민 광양시 산림소득팀장은 “산림분야 보조사업 신청접수와 농정심의의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를 걸러내겠다”며,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통한 민간이전 보조금의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신양삼, 방울도마도, 느타리버섯